

이 거대한 상자에는 세계 역사상 중요하고 유례가 없는 어느 두 사람의 대화가 영구 보존되어 있다.

미합중국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은 1972년 2월 12일 중국을 방문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주석인 마오쩌둥(毛澤東)을 만났다. 양국 정상의 만남은 이데올로기로 인해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세계 정치 구도에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로부터 2년 뒤 1974년 3월 23일 마오쩌둥은 당 조직부장이자 정치국 후보 위원인 덩샤오핑(鄧小平)과 함께 미합중국에 비공식적으로 초청받았다. 이는 비밀리에 진행되었으며 그들의 회담 장소는 물론 어떠한 내용의 회담이 진행되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단지 소비에트 연방 정부에 의해 추방되어 스위스에 망명 중인 알렉산더 솔제니친(Aleksandr Solzhenitsyn)이 동석했음이 알려져 있다. 그들의 만남은 상호간 만족할만한 결과를 유추하기에는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그 회담은 이틀만에 타협점을 찾았다. 그 성공적인 회담을 기념하기 위하여 솔제니친은 미합중국의 정부에게 한가지 제안을 하였다. 그들이 회담을 하기 위해 접견하였던 방을 영원히 폐쇄시켜 이를 기념하자는 것이었다. 닉슨과 마오쩌둥은 이를 기꺼이 수용하였으며 미합중국의 정보국 요원과 과학자들은 폐쇄된 방의 내부의 대화를 수집하여 두 개의 상자에 영구히 밀봉하였다. 이는 솔제니친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으나 미국 정부의 이러한 행동에 중국 정부는 전혀 관여하질 않았다고 전해진다. 현재 하나는 미합중국의 네바다주에 있는 미정보국 소속 자료 보관실에 보관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는 중국에 전달되었다. 그러나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를 즈음하여 중국에 전달된 상자는 중국정부에 의해 파괴되었다. 1998년 7월 미정보국에 보관되었던 상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유출되었으며 이 상자는 여러명의 소유끝에 결국 홍콩의 한 개인 사업가의 손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 이 상자는 홍콩의 중국은행(Bank of China) 54층에 전시되어 있다.

collection: Wang Tsu-lin, 홍콩